

우윤근 “개헌, 내년 4월께 국민투표해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오스트리아 분권형 모델로 구체적 시간표 제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급…기본권·선거구제 다 손봐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개헌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 테세여서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우 내정자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기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라며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걸 갖고 특위에서 조율하 (논의) 하다가 연말 정도 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개헌특위와 의장 직속 자문기구의 개헌 계획 논의 → ▲연말 대국민 대상 공개

적 논의 → ▲연초 또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대선 레이스가 내년 봄 이후면 시작되니 대선주자끼리 합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다”며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바로 국민투표 준비 절차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걸게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내정자는 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했으며, 개헌특위 가동 역시 원내대표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개헌은 현재 권력인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권주자들 간의 합의도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우 내정자는 “나는 대로 우리 당쪽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김종인 대표나 이상호 원내대표도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물밑 역할을 맡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친본(친문재인) 인사로도 꼽히는 우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표는 자주 보니까”라고 말해 이미 소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포인한다.

우 내정자는 우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헌의 범위에 대해선 “생명존중, 환경권의 중대성 강화 등 기본권 분야만 하더라도 3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3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명부식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한 적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현실화하기에는 적기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아권이 분열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태인데, 이번 총선으로 3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되더라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영남 신공항 입지 선정 냉가슴

부산 가덕도 vs 경남 밀양…‘뒀밭 양분’ 후폭풍 부담

“극도로 조심스럽고 민감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한 참모가 15일 내놓은 반응이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영남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냉가슴 앓듯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른 24일 이전에 신공항 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공항 문제는 청와대 내에선 ‘금기어’로 통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뒀밭인 영남지역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데다 부산과 대구가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터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불개입’ 원칙에 따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신공항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신공항 발표 때 배제과 가중치 등 구체적인 선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기본 원칙과 계획에서 변한 게 없다. 선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잠잠이로 발표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대강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 논리에 따른 논의 및 결과 수용 등이 현재 신공항 문제를 접하는 정부의 기본 골격이지만, 입지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정치권은 여러 경로로 지역 여론을 전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더욱 근색스러워 하면서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문제를 묻는 말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 참모는 “신공항 입지발표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도 않고 전혀 알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입지 결과 발표에 따라 뒀밭 표심이 양분될 수 있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 가덕도로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민거리다. 4·13 총선 당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배출되는 등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확인된 만큼 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아권 박 대통령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건복지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출사표 “호남출신 대표 당선 자체가 정치혁신”

새누리 8월9일 전대 최경환·원유철 등 친박계 후보 단일화 관심

새누리당의 유일한 호남 3선인 이정현 의원이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 의지를 표시하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당대표에 호남출신이 당선되는 것은 정치적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신이고 정치쇄신이고 정치개혁이고 새누리당의 대변화로 평가받을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지금 큰 위기에, 비상한 리더가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 극복해야 한다”며 “(그 리더는) 모질고 모진 만남을 이겨낸, 그래서 일반 국민, 일반 서민의 심정과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주류로 비엘리트로 끊임 없이 루저의 길을 걸어오면서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곡성이 낡고 순전이 키워주신 이정현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보다 하루 전인 1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비전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바뀌어나고자 한다”면서 출마 선언문에 가까운 당 운영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슈퍼스타K 방식의 대선후보를 뽑는 당을 만들어보고 싶다. 4년 내내 후보를 찾아 당의 노선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처럼 이 의원이 출마 의지를 확고히 표시하면서 친박(친박근혜)계는 당권을 놓고 ‘고통정리’가 어려워졌다. 후보군이 넓은데다가 지도부 선출 방식까지 바뀌면서 계파 내에서 후보 정리가 힘들어진 것이다. 기존 ‘2인 연기방’(1인2표) 투표 방식에서는 같은 계파 성향의 지역을 달리하는 후보가 암묵적으로 연대함으로써 표를 나눠 갖는 합종연횡이 가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 당직자는 15일 “예전에는 후보가 확보한 당직위원장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대략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 대표를 정면 대결 방식으로 뽑고 총선 이후 여론 흐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당 대표 도전자로 친박계에서는 이 의원의 외에 이주영(5선)·홍문종(4선)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여기에 핵심 실세인 최경환(4선)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다. 최 의원은 자신은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결국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또 원유철(5선)·정우택(4선)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어서 이들이 모두 출마할 경우 친박계 후보군만 최소 6명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당·정·청 회의 4개월만에 재가동

이르면 내일…쟁점법안 논의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요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4개월 넘게 멈춰선 당·정·청의 고위급 채널이 곧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동 시기와 관련해 17일을 제안했고, 당·정·청은 현재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르면 17일이나 주말께 고위 당·정·청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지난 2월10일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3자가 한자리에 머리를 맞

대게 된다. 이번 회동에는 관례대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여소야대’ 체제인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주요 이슈로는 박 대통령이 개헌연설에서 언급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꼽힌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의 명분! 최고의 투자처!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개발지란 무엇이고, 왜 개발지가 매력인가? 토지 투자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공개합니다.

부동산 토지 재테크 무료 세미나

강의 내용: ◆ 토지시장 현황과 전망 ◆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 미래가치 뛰어난 투자 유망지역 ◆ 최고의 명분 있는 유망지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최고의 물건지 고르는 법 ◆ 최고의 값이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지역 직접 공개

강사: ◆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 현지 실전 전문가

일시: 6월 20일(월) 1부 오후 2시~4시 / 2부 오후 7시~9시
장소: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가람빌딩9층 (돌고개역)

부동산토지재테크 상담소
예약전화 ☎ 062)576-7955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